**1부**

**오프닝**

안녕하세요! 저희는 The Entire History of US 라는 제목으로 이번 발표를 진행하게 된 11조 You Make Me Feel Like Eleven의 조규빈, 이서현, 이주헌입니다.

본격적으로 발표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많은 분들이 아실만한 한국 드라마의 한 장면을 통해서 워밍 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드라마는 지난 겨울, SBS에서 상영되었던 ‘그 해 우리는’이라는 작품입니다. 드라마에 대한 기본적인 소개를 간단하게나마 해드리자면, 남자 주인공인 최웅은 전교 꼴등, 여자 주인공인 국연수는 전교 1등으로, 고등학교 때 함께 다큐멘터리를 촬영하다가 정이 들게 되고, 결국에는 아주 지긋지긋할 정도로 사랑에 빠지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보여드리고자 하는 장면은 두 사람이 출연한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촬영 날을, 꽤나 다른 장면으로 기억하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입니다. 바로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https://www.youtube.com/watch?v=Ey4BijI03bs&t=1643s>

14:10 ~ 17:35

두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사랑의 시작을 느낀 시점을 서로에게 미루며, 아예 다른 분위기와 대사로 같은 시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른 경험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상반되는 기억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장면을 통해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누구의 기억이 옳은 기억이냐가 아니라, 모두에게 있어 ‘기억’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자유롭게 변형된 채로 저장된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의 ‘사실’을 지울 수는 없겠지만, 인간은 ‘망각’을 통해 어떠한 사실들은 잊으며 살아간다는 것도 알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만약,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을, 하나부터 열까지 빠짐없이 모두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는 device가 있다면 어떨까요? 블랙미러 시즌 1의 3번째 에피소드인 ‘당신의 모든 순간’과 ted chiang의 소설 “truth of fact, truth of feeling”에서는 이러한 기기가 만연하게 사용되는 사회를 그려냅니다.

**블랙미러 소개**

블랙미러에서는 이 기기를 ‘grain’이라고, 책에서는 ‘remem’이라고 칭합니다.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기를 다루고 있지만, 두 작품에서 이를 그려내는 방식은 상반됩니다. 블랙미러에서는 특히나 기억 저장 장치가 활용되는 사회의 모습을 비판적으로 담아내고 있는데요. 그 중 몇 가지 주요 장면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면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i-QGLMgpseU>

~00:26

주인공은, 공항 검색대에서 경호원들에 의해, 자신의 지난 24 시간 동안의 기억을 4배속으로, 그리고 지난 일주일 동안의 시간을 64배속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안전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지난 기억들을 통해 이를 증명하게 된 거십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의 사생활을 통째로 기록한다는 점에서 privacy문제를 야기하지만, 한편으로는 범죄 예방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계에서는 사람들의 얼굴을 완벽하게 인식하는 기능을 이용하여 범죄 발생을 예방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장면은, 보완과 안전에 있어서의 기억저장장치의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장면은 19금 장면으로, 저희가 영상 및 캡쳐본을 가져올 수 없어서, 말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른 장면 캡쳐나 스틸컷으로 이미지는 대체)

블랙미러의 ‘당신의 모든 순간’ 에피소드는, 부부의 불륜을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남자주인공인 리암과 여자주인공인 피가, 그 주인공인데요. 저희 조원들이 공통적으로 정말 충격을 받았던 장면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부부가 성관계를 가지는 장면인데, 두 사람은 현재에 충실한 것이 아니라, 동시에 기억 저장 장치를 통해서 두 사람이 과거에 더 열정적으로 성관계를 했던 장면을 재생해놓고, 현실에서는 그저 무의미한 움직임만 반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같은 침대에 누워 있지만, 둘 중 그 누구도 현재를 살아가지 않고, 과거의 기억에 의존해 쾌락을 추구하는 이 장면은 굉장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뿐만 아니라, 에피소드 내내 주인공인 리암은 자신의 과거의 순간에 지속적으로 집착합니다. 평가회에 다녀 온 뒤로는, 계속해서 그 장면 만을 돌려보고, 심사위원의 말 한 마디에 매우 집착을 하면서 의미를 부여하고, 자신이 떨어진 것은 아닌 지 괜한 걱정까지 하게 됩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저절로 잊혀지고, 영상 등의 형태로 기록을 해 놓은 것이 아니라면 다시 돌려보기 어려운 현재 저희들의 기억과는 달리, 이들의 세상 속 기억은 언제든, 원하는 만큼 돌려볼 수 있는 영상 콘텐츠와도 같습니다. 이 기능은 방금 저희가 소개 드린 장면처럼 아주 끔찍하게 비춰지기도 하지만, 그 이면에서는 누군가가 일찍이 세상을 떠난 소중한 주변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싶을 때 언제든 기억을 돌려 볼 수 있다는 장점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럼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 볼까요? ~~세번째 장면입니다.~~

리암은 자신의 기억저장장치를 계속해서 돌려 보며 느낀 것들을 바탕으로, 아내인 피가 조나스라는 다른 남자와 불륜의 관계라고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피에게 그레인을 통해 그 남자와 아무 일이 없었다는 걸 증명하라고 화를 내고, 피는 끝까지 못하겠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자신의 불륜 장면을 재생하게 됩니다. 리암과 피는 그 장면을 함께 시청하면서, 서로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읽게 되고, 관계는 그야말로 파국으로 치닫게 됩니다. 설령 그것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지금의 저희라면 절대 드러나서는 안되는 비밀, 혹은 사생활이 너무나 쉽게 드러나는 사회가 바로 기억저장장치가 존재하는 사회입니다. 그레인이 있다면, 모든 말의 기준은 그레인 속 영상이 되어버립니다. 저희는 만약 정말 이런 사회가 도래한다면, 그때는 친구가 그냥 경험담 하나를 이야기 할 때도, ‘그레인 보여줘 봐’라는 말로 서로에 대한 신뢰를 모두 잃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세상은 진실에는 더욱 가까워질 지 몰라도, 많은 관계는 파국으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블랙미러의 에피소드에 대한 소개였는데요. 모든 줄거리를 설명 드리지는 않았지만, 기억 저장 장치의 존재로 인해 파국에 이르게 된 한 부부의 끔찍한 이야기는 잘 전달이 되었을 것 같은데요. 텍스트에서도 거의 유사한 장치와 그로 인한 사회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지만, 블랙미러와는 다른 결말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소설 “truth of fact, truth of feeling”** **소개**

책 속에서는 아버지인 피터와 딸인 니콜이 아주 먼 옛날, 두 사람이 싸웠을 때의 기억에 대한 불일치로 인하여 불화를 겪게 된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주인공 피터는 수년 간 자신과 니콜과의 관계가 파괴된 결정적 원인을 니콜이 “엄마가 집을 나간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해?”라고 자신에게 소리친 뒤 집을 나갔기 때문이라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난 뒤 피터는 직접 기억저장장치를 통해 이때의 장면을 재생하게 되고, 그 말을 내뱉은 사람은 니콜이 아닌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피터는 본인이 간직해 온 ‘감정적 진실’과 리멤을 통해 마주한 ‘사실적 진실’ 사이의 괴리로 괴로워하다, 결국 이를 받아들이고 니콜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회복되는 행복한 결말을 맞게 됩니다. 이때, 만약 기억저장장치가 없었더라면, 둘 사이의 관계는 나이질 수 있었을까요? 아마 평생 없었을 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같은 기억 저장 장치의 활용도 누군가에게는 파멸을, 누군가에게는 화해를 줄 수 있다는 걸 두 작품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저희는 네 가지 키워드를 통해 책과 영상에서 비춰진 내용을 비교 대조를 해보고자 합니다.

**키워드를 통한 텍스트 비교**

첫 번째 키워드는 ‘신뢰’입니다. 블랙미러에서 두 부부는 서로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잃게 됩니다. 그 이유는, 원래 같았으면 서로가 기억하고 싶은 대로 기억하고 지나갈 일을, 그레인을 통해 계속해서 돌려 보며 둘 중 하나는 틀렸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대방에 대한 의심이 생겼을 때, 그것을 언제든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신뢰’를 형성하는 알고리즘 자체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 예시로, 블랙미러에서, 주인공이 조나스를 폭행하자 그걸 보고 있던 주변 사람이 경찰에 신고를 하지만, 그조차도 그레인을 통해 영상을 보내줘야만 출동이 가능하다고 하며,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장면이 나옵니다.

반면, 소설에서는 기억저장장치가 다른 방식으로 신뢰를 형성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내가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는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중요한 거다”라는 대사와 함께, 기억저장장치가 오히려 신뢰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역할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 예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기록에 대한 태도’입니다. 블랙미러의 주인공 리암은, 결국 자신이 직접 칼로 귀 뒤에 심어져 있는 그레인을 파내는 장면으로 작품이 끝이 납니다. 모든 것이 기록되는 사회에 적응해 그것에 집착하다가, 결국에는 그로 인한 사랑하는 사람과의 파멸을 마주하게 되며 기술에 저항하기를 택합니다. 반면, 소설에서 주인공은 리멤을 받아들입니다. 그 장치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모두 인지한 채로, 그것을 매우 환영하지도, 또 배척하지도 않으며 그것을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는 중립적 태도를 보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두 작품은 유사해보이면서도 다른 점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기술을 사용하는 세대의 차이’입니다. 블랙미러에서는 이미 모두가 그 기술을 사용하고, 익숙해진 사회의 모습을 그리고 있지만, 책에서의 첫 번째 에피소드는 이제 막 사회에 도입된 새로운 기술을 소재로 다루고 있고, 따라서 어린 연령층의 세대만이 그 장치를 사용한다는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이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그 중에서도 어떤 연령층이 해당 기술을 사용하는 지에 따라 결말이 180도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진실 이후의 선택’입니다. 텍스트와 영상은 공통적으로 마지막에 ‘진실’을 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영화에서는 그레인을 몸에서 제거하는 마지막 장면을 통해 ‘적절한 망각과 왜곡이 우리에게 더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레인을 통해 마주하게 된 진실은 행복한 진실이 아닌, 어쩌면 몰랐다면 더 행복하게 살았을 수도 있는 불편한 진실이죠. 반면, 책 속에서 주인공이 알게 되는 진실은 주인공의 기억과는 다른 형태이지만, 주인공은 이를 받아들이고, 관계의 개선과 신뢰의 형성이라는 결과를 낳게 합니다.

이처럼, 텍스트와 영상은 분명 같은 소재와 키워드를 공유하고 있음에도, 그 전개 방식 혹은 결말에서 다르게 나아가며 기억 저장 장치 기술의 양면성을 상호보완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2부**

**트랜스휴머니즘**

이번에는 저희가 다루고 있는 텍스트와 영상을, 공통된 외부 개념으로 연결 지어 보고자 합니다. 텍스트나 영상에서 직접적으로 언급된 개념은 아니지만, 저희가 공통적으로 도출해낸 개념은, 트랜스 휴머니즘입니다.

트랜스 휴머니즘이란, 기술을 이용하여 인간의 신체적, 정신적 능력을 개선할 수 있다고 믿는 신념 혹은 운동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르면, 장애, 고통, 질병, 노화, 죽음과 같은 인간의 조건 및 속성들을 모두 바람직하지 않고 불필요한 것으로 규정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조건들을 해결하기 위해 생명과학과 신생 기술을 활용하자는 것이 바로 트랜스휴머니즘의 주장입니다.

사실 이 개념의 시작은 거창한 것이 아닌, 그저 인간의 질병이나 신체적 장애의 해결, 제거를 목표로 많은 첨단 의료기술들을 활용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형수술과 같은 사례에서도 쉽게 느낄 수 있듯이, 비록 그 시작은 질병이나 장애의 해결이었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기술을 '정상적인' 신체능력 혹은 정신능력의 향상을 위해 활용하는 빈도는 점점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어느 지점에 도달하면, 기술을 활용해 인간의 본성을 '변형'하거나, '향상'시키고자 하는 적극적 시도로 이어지게 되고, 바로 이것이 트랜스휴머니즘에서 추구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의 한 학자는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미 트랜스휴머니스트이다’라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한국이 인구 대비 성형수술 횟수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라는 점만 고려하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트랜스휴머니스트가 되어 있을 수도 있고, 트랜스휴머니즘의 사고를 무의식적으로 갖고 있다고 생각해보면, 이 개념의 심각성이 잘 와 닿지 않으신가요?

과거의 기술들은 그저 인간의 지성이나 육체적 능력을 도구적으로 ‘보완’해주는 단계에 머물러 있었다면, 미래의 기술들은 인간의 외형을 포함한 육체나 마음의 구조, 그리고 인간의 능력을 근본적으로 변형하고 향상시키는 기술들입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는 ‘우리의 선택’에 따라 현재의 인간과는 구분되는 새로운 종인 ‘포스트 휴먼’을 탄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인류가 자신의 진화의 방향성을 스스로의 선택을 통해 결정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이죠.

**사례 1– 우리 조 텍스트, 영상**

그렇다면, 트랜스휴머니즘의 사례로는 어떤 것이 있을 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 살펴 본 블랙미러의 에피소드는 대표적인 트랜스휴머니즘의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한정된 기억력, 그리고 망각의 능력을 뛰어 넘어 완벽히 모든 걸 기록할 수 있는 기록 장치를 신체에 삽입해 이를 개선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말이죠. 이것은 Creating super-intelligent human beings, Incorporating machines in body, Brain = technology (just like we depend on the internet and have access to it, tons of info set out in our brain)라는 트랜스휴머니즘의 목적에도 완벽히 부합하는 사례입니다. 또한, 책에서의 remem은 블랙미러의 grain과 유사한 기능을 하며 같은 측면에서 트랜스휴머니즘의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사례 2 – 동면 프로젝트**

조금 다른 분야의 사례도 존재합니다. 바로, ‘동면 프로젝트’를 들 수 있는데요. 동면 프로젝트는 동물의 겨울잠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인간의 몸을 냉각한 후 체온을 내리고 대사를 감소시키는 실험입니다. 이것을 트랜스휴머니즘의 측면에서는, ‘인간의 육체와 시간의 한계를 뛰어넘으려는 시도’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동면을 통해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신체 노화를 멈출 수 있다면, 그것은 말 그대로 초월의 경지에 다다른 결과일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사례로는, 미 항공우주국(NASA)이 주도하고 있는 동면 프로젝트를 들 수 있습니다. 이는 유인 우주선을 발사한다고 했을 때, 방대한 우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아주 긴 시간을 동면으로 대체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이는 인간의 생명의 한계와 함께 시간의 흐름조차 초월하고자 하는 시도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나사는 미국의 스페이스웍스와 함께 우주 비행사들을 위한 동면실 개발에 나선 상황입니다.

**사례 3 – 알츠하이머 환자를 위한 기억저장장치**

또 다른 사례로는 의학에서의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이 텍스트 발표자들이 조금 요약해서 설명해주시면 될 것 같아욤) In 2017, a company called MMT Neurotech made progress in the full-launched development of their implanted, memory playback system. Essentially the system would, like the grain, allow for downloads onto its drive that can be replayed and re-experienced by the person with the implant. These memories can come from the person themselves or from other people, but in both cases the thoughts and memories would be initially recorded with functional MRI. Dr. Steven Levy, the CEO of MMT Neurotech, has amazing intentions. He feels that his system could be extremely beneficial in particular for Alzheimer's and Autism patients. For people suffering from Alzheimer's, being able to access their own memories or memories from their friends and family could greatly help lessen the blow of the associated memory loss, thus allowing them to maintain certain core memories despite their short-term memory loss. Alternatively, Dr. Levy feels that he could help Autistic patients as well by implanting memories of normal social interactions and behaviors from other people into the device in order to hopefully promote the proper brain pathways to develop and aid more proper social development as the child grows.

**트랜스휴머니즘의 윤리적 문제**

그러나, 우리가 앞선 텍스트와 영상을 통해 확인했듯, 과학기술을 통해 인간이 완벽한 모습에 더 가까워진다는 것, 즉 ‘트랜스휴머니즘’을 추구하는 것이 반드시 인간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준다고 볼 수 있을까요? 또한, 인간이 가진 속성을 초월하는 것이 꼭 행복을 보장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블랙미러 에피소드에서처럼, 오히려 그 결과는 파국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극단적인 결과를 내게 되는 것은, 트랜스휴머니즘이 지니고 있는 윤리적인 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정치학자인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트랜스휴머니즘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상’이라고 비판하기도 하였습니다. 트랜스휴머니즘을 추구하다 보면 인간의 존엄성이 무너지거나, 사회적 불평등이 심해지거나, 생물학적인 위험이 존재하는 등 다양한 윤리적 문제점들이 존재합니다.

트랜스휴머니즘의 윤리적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휴머니즘’의 개념과 비교해보면 쉽게 파악이 가능합니다. 휴머니즘 역시 ‘인간을 향상시킨다’라는 대의명분은 동일하지만, ‘기술’이 아닌, ‘교육’을 통해 인간다운 인간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행위를 의미하는데요. 이때의 ‘인간다운 인간’이란 정신적 육체적 능력을 ‘스스로’ 향상시킨 인간, 즉 자율성을 가진 윤리적이고 건강한 인간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트랜스휴머니즘은 ‘기술’을 통한 인간의 한계 극복을 의미하는 개념이었죠. 다시 말해서 자율성을 가지고 자기계발을 하는 인간이 아니라, 기술에 의존하여 자신을 향상시킨 인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에 대한 깊은 사유나 사고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의 힘을 빌려서 발전을 꾀하기에 트랜스휴머니즘은 여러 문제점들을 야기하게 됩니다. 블랙미러의 주인공들이 주체적으로 과거를 기억하는 것을 포기한 모습을 보였던 것처럼, 트랜스휴머니즘의 끝에는 자율성을 상실한 인간만이 존재할 것입니다.

이렇게, 트랜스휴머니즘의 개념과 예시들, 그리고 저희의 텍스트와 영상과의 연관성까지 설명을 드려 보았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실지 매우 궁금하지만, 그건 질문 시간에 들어보도록 하고, 저희가 준비한 다음 목차로 넘어가보겠습니다.

**기록과 미디어**

다음 챕터는 ‘기록과 미디어’라는 목차입니다. 저희 조가 맡은 텍스트와 영상에서는 공통적으로 ‘기록’이라는 키워드를 포착할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들은 보통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어떤 걸 기록하시나요? 아마 가장 흔한 경우로, 자신의 일상을 여러가지 매체로 기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거기에 더해서, 어떤 현상에 대한 자신의 짧은 생각이나 감상을 남기는 것도 모두 기록의 일부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직접 종이에 적어서 아날로그 식으로 기록을 하는 방식이 대부분이었지만, 디지털 원주민들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은 이제 짧은 글과 사진, 영상을 통해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등등을 떠올려 보면 바로 이해가 가실 겁니다. 이렇게, 기록과 미디어는 뗄 레야 뗄 수 없는,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왜 기록 매체를 필요로 했을까? 라는 질문에 대해 국립 중앙 박물관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최초의 기록 매체는 인간의 두뇌였다. 정보와 지식은 두뇌의 해마(海馬)에 기록되어 기억으로 남는다. 하지만 기억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왜곡되거나 사라지기도 한다.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인류는 바위, 점토판과 같은 외부 매체에 기록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블랙미러와 책에서의 grain과 remem은, 여기서의 ‘외부 매체’가 극도로 발달한 결과라고 볼 수 있인데요. 이 매체들은 자연스럽게, 기록의 방식의 변화를 뛰어넘어 사람들이 소비하게 되는 콘텐츠에도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만약 블랙미러에서 그려낸 사회처럼 모두가 기억 저장 장치를 매우 흔하게 사용하는 사회가 도래한다면, 사람들은 더 이상 브이로그 등을 통해 자신의 일상을 직접 시간과 돈, 노력을 들여 기록할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돌려보고 싶은 기억이 있다면 언제든지 돌려볼 수 있게 되니까요. 한 마디로, 현재의 사람들이 기록하고, 또 반대로 소비하고 있는 많은 콘텐츠의 유형들이 그 ‘경쟁력’과 ‘생명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기억 저장 장치로 기록한 영상을 SNS 등에 업로드하여 자신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게 된다면, 사생활의 측면과도 관련이 되어 우리가 그동안 매체를 통해 담아내고 공유할 수 있다고 생각한 영역이 훨씬, 정말 훨씬 넓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두 눈으로 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광경들도 쉽게 볼 수 있는 날이 올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일어났을 때에도 사람들이 유튜브와 넷플릭스를 볼 지, 또 어떤 콘텐츠가 전세계적인 인기를 얻게 될 지는 아무도 알 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 미디어가 기록의 방식에 끼치는 영향, 또 반대로 기록의 방식의 발달이 미디어의 경향성에 끼치는 영향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가까운 예시로서는, 이미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 적응 된 디지털 원주민 세대들이 오히려 싸이월드나 네이버 블로그 같은 이전 시대의 기록 방식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현상입니다. 이것은 기록 방식과 미디어의 발달이 단순히 순행의 방향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대에는 역행을 하기도 하고, 다시 돌고 돌게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사람들의 본능인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특성’ 때문에, 한 세대가 어떤 매체에 적응을 하고 나면 또 다른 기록의 방식을 갈망하게 된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레인과 리멤과 같은 장치들이 아무리 발달하더라도, 다시금 아날로그 기록 방식으로 회귀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을 지는 그러므로 아무도 예측할 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 ‘기록’과 ‘미디어’가 서로에게 주고 받을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 보았는데요. 그만큼 앞서 설명한 개념인 트랜스휴머니즘, 과학기술, 그리고 미디어는 각자 별개의 분야가 아니라 모두 연결되어 있는 개념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결론**

오늘 저희는 첫 번째로 블랙미러의 ‘당신의 모든 순간’ 에피소드와, 테드창의 저서 The truth of fact, the truth of feeling 을 다루며 기억저장장치에서 비롯된 여러 키워드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연결해서는 트랜스휴머니즘의 개념과 함께, 기록과 미디어의 발전을 연결지어 보기도 하였는데요.

저희가 발표를 준비하면서 느낀 것은, 기술의 발전은 더 이상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멈춰야 한다, 멈추지 말아야 한다’라고 결정을 한다고 해결 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이 중요하며, 그 기술을 어디에 어떻게 활용하는 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때, 미디어가 기술의 활용에 끼칠 수 있는 영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인간에게 주어진 과제는 ‘기술, 기계와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가?’입니다. 이는 단순히 기계의 끔찍한 단면을 보고 그것을 회피하고 외면하는 것이나, 또 무분별하게 기술을 수용해 활용하는 것 이 두 가지 모두 정답은 아니라는 걸 보여줍니다. 특정한 기술을 활용할 지, 혹은 활용하지 않을 지 결정하기 위해서는, 그 기술이 지니고 있는 두 가지의 날카로운 단면들을 모두 알아야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저희 조원들과 오늘 설명을 들으신 여러분들이 블랙미러와 책의 스토리를 통해 기억저장장치가 지닌 양면성을 깨닫게 되고, 이에 대한 윤리적인 판단이 가능해진 것처럼 말이죠.

**질문**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싶은 주제가 참 많지만, 그 중에서도 4개의 질문만 추려서 가져와 보았습니다. 저희의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다들 적극적으로 답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기술의 발전은 utopian society를 가져오기 위한 것이지만, 그것이 오히려 dystopian society를 야기할 수 있다' 에 동의하는가?
2. ‘인간적’이라는 건 무엇인가? 혹은, ‘인간의 조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인간’이기 위해 포기하지 말아야 할 가치는 무엇인가?
3. 사회에서 더 중요히 여겨야 하는 것은 검증된 사실인가? 아니면 우리의 사유를 통해 만들어낸 가치를 추구해야 하는가?
4. 완벽한 기억을 가질 것인가 vs 완벽하지 않아도 감정, 추억은 남아있는 기억을 간직할 것인가? 만약 모두가 완벽한 기억을 택한 사회에서도 망각을 택할 것인가?